

1. 사업명

지리산 생태·문화 가이드 양성교육

2. 사업목적

생명평화의 안목으로 지리산의 생태, 문화, 역사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지리산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다. 본 교육을 통해 지리산의 가치를 제대로 배운 안내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지리산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갈 교육의 주체를 키워내고 지리산권 초·중·등용 교과서 제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3. 사업의의

- 지리산권 각 지역의 자발적인 주민 역량을 이끌어내 교육함으로써, 지역의 생태·문화 안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리산 생태·문화 해설을 통해 지리산의 가치를 새로이 하고, 관광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지리산을 사고하도록 의식 전환의 기회를 마련한다.
- 본 교육에서 배출된 안내자들의 활동을 통해 차로 둘러보는 관광 일변도의 문화를 바꾸어 지리산권의 바람직한 답사와 관광문화를 유도한다.
- 본 교육의 강의를 바탕으로 지리산 안내 책자, 지리산권 초·중·등 교과서 제작의 기초를 마련한다.
- 지리산권의 주민,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지리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활동에 나섬으로써, 영호남과 행정구역의 구분을 넘어 지리산 안에서 하나되는 지역통합과 화합의 문화를 일구어내는 데 일조한다.

4. 사업내용

1) 사업 구성

본 사업은 지리산에서 처음 구성되는 생태·문화 가이드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실무 경험자들로 교육팀을 구성하여 기획 준비를 거쳤다. 전체 사업은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본교육, 평가, 양성교육 이후 수료생들의 안내자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분	내 용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교육팀 구성 ○강사진 및 운영주체 선정 ○강사섭외, 강의안 작성, 교재 제작
나. 가이드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교육 프로그램 일정별 진행 ○참가자 평가서 작성 ○내부 평가
다. 수료자 공부모임 진행	○수료자 자발적인 이후 공부모임 진행 ○모니터링 ○인터넷 모임, '지리산안내자교육' 카페 개설
라. 수료자 안내 활동	○마을안내, 숲 안내 활동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 지리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양성 교육을 위해 전문가, 자연해설가, 시민단체 교육담당으로 구성되는 교육프로그램 기획팀을 꾸려 논의 후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
- 자연환경해설을 국내에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진행해온 순천대학교의 조계중 교수를 본 교육프로그램의 교장으로 하여,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자연해설연구회, 지리산생명연대의 교육부장이 논의를 거쳐 기획.
- 강사 섭외를 거쳐 강의 원고를 받고, 일부 의견 조율과 수정을 거쳐 강의 교재를 구성함.

나. 가이드 양성 본교육

- 홍보 : 지리산권이라 할 수 있는 5개시군(함양, 하동, 구례, 남원, 산청)의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참가자 모집 광고를 하고 관련단체에 참가자 모집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 지리산국립공원 내 대피소(노고단, 피아골, 뱀사골, 세석)에도 홍보지를 부착, 인근지역(진주, 순천, 전주)과 서울 소재의 관련 사이트들에 홍보.
-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수강생 18명에 보조 진행자 2명의 참여로 총 5주 진행.
- 수료식과 졸업 산행으로 교육 완료

다. 수료자 공부 모임

- 수료자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공부모임 진행. 2주에 한번씩 모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인근 숲에서 표본을 채취하고 식생 공부중.
- 다음 카페상에 '지리산안내자교육' 카페를 개설하고 통신중.

라. 수료자 안내활동

○ 수료 이후, 인근 지역 연수 프로그램의 요청을 받아 수료자가 마을 안내와 숲 안내를 3회 진행함.

2) 가이드 양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가. 전체 일정

일자	시 간	주 제	강사 / 진행
8. 28(토)	16:00-17:00	개학식(인사 나누기, 모듬 나누기)	조계중 (본 교육 교장)
	17:00-18:30	숲과 삶의 문화	박봉우(강원대 교수)
	18:30-19:30	저녁 식사	
	19:30-22:00	국립공원의 역사와 이해	조계중(순천대 교수)
8. 29(일)	9:00-10:00	자연해설의 의미와 원리	조계중(순천대 교수)
	10:00-12:00	자연 해설 시연	자연해설 연구회
	12:00-1:00	점심 식사	
	1:00-2:30	자연 해설 시연 (하천)	자연해설 연구회
9.4(토)	16:00-18:00	지리산의 식생-나무	이정환(진주산업대 교수)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00	지리산의 식생-꽃	이정환(진주산업대 교수)
9.5(일)	8:30-2:00	현장 탐방 -지리산의 식생	이정환(진주산업대 교수)
9.18(토)	16:00-18:00	호랑이가 살던 지리산 이야기	우두성(자연생태보존회장)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지리산의 야생동물	최태영(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9.19(일)	8:30-3:00	동물 흔적 찾기	최태영(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10.2(토)	16:00-18:00	지리산과 역사	이성렬(역사교사모임)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30	지리산의 문화재	조익현(거창환경정보고)
10.3(일)	8:00-9:30	지리산 불교문화유산, 사찰의 상징체계	재연 스님 (실상사 화림원장)
	10:00-3:00	지리산의 문화재 탐방	조익현 (거창환경정보고)
10.16(토)	16:00-19:00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하기	하시연(숲 안내자)
	19:00-19:30	졸업식	조계중(순천대 교수)
	19:30-22:00	저녁식사와 다과	
10.17(일)	8:30-2:00	지리산 바래봉 졸업 산행 (숲해설 연습)	

나. 활동 개요 일지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국립공원의 역사와 이해				
교육 일시	2004. 8. 28	교육장 소	뱀사골강의실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조계중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활화산 국립공원과 미시간 주 잠자는 곰 국립공원에서 공원 해설가로 활동 - 순천대학교 교수 			
교육 내용	<p>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로서 국가가 보존을 천명한 지역임. 지리산 지역의 안내자들에게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여 국립공원의 역사와 개념, 현황 등을 영상 강의로 진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자연보호법과 국립공원의 현황 사례 -국립공원의 특징과 역사 -자연환경보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자연공원법으로 자연공원과 역사,유적 자원관리를 함께 하는 문제점 -현행 국립공원관리 실태.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승격, 관리하기 위한 의미있는 제안들. 				
준비물	영상강의 (프로젝터,노트북,영사막, 레이저포인터)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지역이 대부분인 지리산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강의를 개설, 전체적으로 강의내용과 방식에 수강생 만족 -강의 장소 혼선으로 30분가량 지연. 초행자를 위해 장소 확인 필요. -강의장에 음료수 준비 등 세밀한 준비 필요 				

□ 강의 내용 요약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국유지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정책중 빼놓을수 없는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정책과 테네시 계곡 공단 정책으로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고있으며 각국의 국유지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끼쳐왔다.

국립공원은 어느나라 할 것 없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재산중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소중한 문화 역사 자연자원을 함유하고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국립공원 정의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개(1~7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흥미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 풍경을 구비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관계당국이 전 지역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어야 하고, 지정당시의 생태적, 지형학적 또는 미학적 특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영감적,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탐방이 허용되어야 한다.

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현재 모두 20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산악형이 16개소, 다도해 등 해상, 해안형이 3개소이고, 도시형으로 경주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원관리는 1980년대에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원’에서 1990년대에는 ‘쾌적한 탐방 여건 조성’의 목표로 탐방편의 시설물의 현대화, 주차장, 이정표,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자연휴식년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의 목표는 1980~1990년대의 물리적이고 기본적인 관리수준을 넘어 선진국형인 모든 이용자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가는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 이용 측면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자연환경해설을 이용하여, 성인 이용자들을 위한 공원에서의 ‘자연환경해설’과 어린이 이용객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으로 ‘공원을 교실로(Parks for classroom)’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국립공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친화적인 이용과 자연생태계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공원의 해설 기능을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 국립공원관공단측은 알기 쉬운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해설 도구나 해설책자 해설판 팸플렛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무부서는 67년~91년에는 건설부, 91년~97년 내무부, 98년 이후 환경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가공원관리청을 설립해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 자연공원법으로는 국립공원의 위상에 맞는 관리가 어렵다. 자연공원법으로 군립,도립,국립 공원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공원법 제정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공원 안에서 역사,문화,자원관리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한라산(제주시), 경주(경주시), 공원의 경우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해상국립공원까지 국립공원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해양국립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도지구나 관리사항의 법령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숲과 삶의 문화				
교육 일시	2004. 8. 28	교육장 소	뱀사골강의실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박봉우		연락처	
	약력	-고려대 임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교육 내용	숲과 인간의 관계, 단순히 생물학적인 숲이 아닌 문화로서의 숲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개론 성격의 강의. -숲과 인간 -문화의 개념과 정의 -산림과 문화의 개념과 분류, 보편성과 지역성				
준비물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숲과 문화에 대한 총론 성격의 강의였으나,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수강하는 참석자들의 기대에 다소 어긋남. -강사 섭외시 사전 확인작업 필요 -화이트보드 등 강의장 기본 도구 구비 필요				

□ 강의 내용 요약

숲은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숲은 약 3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석탄기인 2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2천만 년 전 기간 동안에 극성기에 달하면서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숲을 형성하는 수목 등이 출현하여 대규모의 숲을 형성하게 된다. 석탄기 이후 약 2억만 년 전인 페름기에 지구는 빙하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에 예전 형태의 동식물들의 생활은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파괴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약 5천만 년 전에 제 2기가 시작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약 200만 년 전이고, 빙하기의 후퇴와 더불어 각종 동물 군이 새로운 산림 내로 이동하게 되자 수렵하는 인간 역시 이들을 쫓아 이동이 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양식에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약 1만 년 전인 중석기 시대부터이다. 중석기에 처음으로 마제석기가 제작되었는데, 마제석기의 출현에 의해 나무 등을 잘라서 공작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 생활하면서부터 평화스럽게 존재하던 숲에는 일종의 동요가 일게 되었다. 자기 무리를 조절할 줄 알아 생태계의 법칙에 충실하게 순응하면서 숲과 함께 평화로움을 유지해온 여타의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의사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숲을 이용하였다. 물론 초기의 인간에게는 숲은 위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식량을 얻는 곳이 되었고, 거처하는 곳이 되었다. 이후 불과 도구의 사용이 시작되면서 숲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본 자원을 공급해 주는 곳,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가져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숲은 기구, 농기구, 선박, 종이 등을 만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원 공급처로의 요구는 가중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생명지지체계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또 다른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숲과 인간의 교류를 통하여 얻어진 정신적, 물질적 가치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녹아들어 삶의 한 형태로 표출되며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을 산림문화로 정의한다면, 그간 역사적 시공간에 나타난 산림문화 형태들은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개국신화와 단군 사적에 나타난 신단수를 시작으로 성황림, 당나무 등으로 표현되는 종교 제의의 형태, 정이품 송과 석송령에서 볼 수 있는 인격부여를 통한 의인화로 정신적 유대감을 표출하는 형태, 소나무 등과 같은 나무에 상징성을 부과하여 사물과 언어를 대신하는 형태, 마을 숲, 비보림, 임수(林藪) 등과 같은 자연 환경과의 보완, 조화, 적응을 보여 주는 환경자원적 형태, 산림치사의 거주지와 같은 은둔, 은일 문화 장소로의 형태, 자연휴양림과 같이 정신적인 이완을 위한 레저 휴양 형태, 실질적인 목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금산, 봉산, 송계 등의 산림자원 보전 형태, 산삼을 비롯한 각종 약재와 구황식물을 채취하는 생존자원 형태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림문화의 형태를 우리나라를 예로 이렇게 구분하였지만 이미 언급된 것들은 내용과 형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산림 혹은 숲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지역적으로 특화 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림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성은 장소의 규모(scale)와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강원도, 혹은 강원도와 춘천 같은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 특히 지역성을 착안해야 하는 것은 항상 소수자(minority)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현실무대에서 슬며시 사라질 운명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문화 형태의 지역성이라 함은 장소적으로 작은 규모에 한정되거나 특화된 것으로서

장소성을 확연하게 보여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역성을 보여주는 산림문화의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배상원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대상으로 나무 이름, 종자, 열매, 산채, 나무 이용과 임업과 관계된 용어 등 숲과 관련된 내용의 등장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그 중 아리랑에 나타난 나무이름의 지역별 등장 회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63회 등장하는데 그중 강원도 지역이 38회로 가장 빈도가 높고,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상도 지역이 8회, 다음 전라도 지역이 6회 순이고, 충청도 지역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 지역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환경, 생활환경 조건의 차이가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성을 보이는 산림문화의 형태는 숲 외에도 다양한 소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산 자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산, 예컨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마니산, 북한산, 계룡산, 오대산,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한라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은 그 자체가 바로 지역성을 갖는 산림문화이기 때문에 산림문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불박이로 있는 산이기에 어떤 것보다도 풍부한 지역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화의 진척과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진행되는 문화의 획일화는 지역성 특성을 담은 지역문화의 소멸을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성 있는 문화의 수집, 정리, 기록, 유지 혹은 보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이 진척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우리의 지역적인 산림문화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집, 정리, 기록, 유지 혹은 보전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지역성 산림문화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산림문화를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자연해설의 의미와 원리 / 자연해설 시연/ 프로그램 운영 및 방법				
교육 일시	2004. 8. 29	교육장 소	뱀사골강의실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조계중/자연해설 연구회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활화산 국립공원과 미시간 주 잠자는 곰 국립공원에서 공원 해설가로 활동 - 순천대학교 교수 			
교육 내용	<p>- 숲해설, 문화유산 해설 등 어느 한 요소만을 부각시킨 해설이 아닌 폭넓은 의미로서의 자연환경해설에 대한 용어 정의, 역사, 외국 사례, 국내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강의.</p> <p>- 뱀사골 자연 탐방로에서 자연해설연구회회원들의 자연해설 시연이 있었음. 식물에 대한 설명과 수서생물 관찰하기, 나무껴안기 등의 자연놀이 시연을 통해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음.</p>				
준비물	영상강의(프로젝터,노트북,영사막,레이저포인터)/수서생물 관찰 도구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p>- 폭넓은 의미로서의 자연환경해설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p> <p>- 현장에서의 시연은 부분적으로 시연자들의 미숙함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해설시연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시연을 통해 다양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p>				

□ 강의 내용 요약

역사적인 유적지나 박물관과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방문경험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한 자연환경해설은, 귀중한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방문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문객 관리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해설가는 사람들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운 대상 속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며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켜 아름다운 방문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해설계획 과정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원리가 있다. (1) 해설적인 테마와 목적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2) 해설 프로그램의 각각의 부분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해설의 주제는 공원에서 방문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것이 해설될 필요는 없다.

해설모델은 해설가들의 수많은 경험과 해설 계획자들의 광범위한 정보의 관계 모색이 중요하다. 해설모델은 단순하고 도식적인 사실 정보의 전달보다는 해설가가 해설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해설의 일반사항들, 즉 해설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해설 스타일, 그리고 킬트의 해설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여 모델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참가 동기와 기대감, 참가자들의 성향과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 해설 후 참가자들로부터의 피드백, 그리고 해설 장소의 자원과 프로그램 진행 시간,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 계획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해설 계획이 훌륭하게 완성될 것이다.

자연환경해설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환경해설 현장과의 연계성은 해설을 시연할 장소에서 해설가가 해설의 대상이 되는 유물, 유적지, 공원, 산림 또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도록 유도하여 해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해설의 대상 장소와 목적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적절한 탐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해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 및 환경 감수성을 자극받음으로써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자연환경해설의 목적은 효과적인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참가자들이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소중한 자원의 관리와 보전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산림청 또는 박물관 등과 같은 담당 주무 기관의 주어진 업무와 직원들의 일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홍보활동(PR)도 겸한다.

해설을 시작하는 서론부분에서 해설가는 어떠한 주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흥미를 자극해야 한다. 해설 프로그램 시점은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명백한 테마 또는 주제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만 한다.

해설의 본론 부분은 해설가들이 준비된 주제를 잘 다듬는 부분이다. 해설가는 프로그램 진행 전에 친밀하게 어디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인지의 장소와 해설 목적물을 확실히 파악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준비를 끝내야 한다. 실제적인 해설 장소와 목적물, 보기, 유사한 내용, 또는 그 장소의 전체에 걸쳐서 관계있는 사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정보를 이용하여 바디 랭귀지를 섞어가며 확신에 찬 해설을 하면서, 결론 부분으로 단계적인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

해설의 끝맺음은 해설의 목적지다. 해설가는 소개부분에서 풀었던 보따리의 내용물들을 본론부분에서 잘 사용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다시 잘 묶어야 한다. 인용이나 요약과 같은 도구를 가미하여 해설의 메시지를 운반하고 참가자들의 적절한 행동을 위해 호소하는 보따리를 잘 묶어야 한다.

해설가들은 훌륭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으로 현장에서 해설해야 한다. 물론, 비록 해설가 여러분이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할지라도, 항상 예기치 않는 상황에 마주치게 된다.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훌륭한 자연환경해설가가 되려면, 먼저 해설하기 전에 자연환경해설가의 역할에 관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지리산의 자연자원-나무, 풀, 꽃, 그리고 숲				
교육 일시	2004.9. 4~5	교육장 소	백사골강의실/ 탐방로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이정환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분류 및 생태학 박사 -현재 경남에코비전 21, 연구소장 -진주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상주대학교 강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식물 및 식생 전문위원 -지리산국립공원 운영위원 			
교육 내용	<p>지리산의 식생에 대한 영상 실내강의와 현장 강의 1박2일.</p> <p>* 실내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생태계의 원리와 환경문제 -식물 분류 방법과 용어 -식물의 구조와 생활 <p>* 현장 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사골 등산로를 따라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구분법 강의. 				
준비물	영상강의(프로젝터, 노트 북, 영사막, 레이저포인터)/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 개체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현장 해설 강의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음 -식물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검색 용어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됨. -지역 주민들의 참관 요청으로 함께 하였으나 인원이 많아 수강생들의 강의 집중도가 떨어져 앞으로 제한 필요. 				

□ 강의 내용 요약

숲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과 개별 식생 분류법에 대한 강의. 이러한 숲에서 벌어지는 체험 환경교육은 가정, 사회,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이어야 하며, 미래의 쾌적한 환경조성의 주역인 어린학생들을 양성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생태교육에 있어서 숲의 역할

왜 숲을 가꾸고 보호해야 하는가? 숲의 거대한 단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동식물, 역사, 문화적 자원, 습지, 능선, 철새도래지, 서식지, 동물놀이 흔적, 희귀종 등)

숲의 단면에 대한 강의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 경사도, 위치별로 다른 숲 / 계곡 과 산능선 식생 / 기후와 숲 / 숲 토양의 역할

공기를 맑게 하는 숲의 기능

농경지 먼지흡착능력 1 잔디밭 2 덩불숲 20 울창한 숲 200

* 먼지 흡착률

	공기 1리터당 먼지 수	먼지 수 비교(배)	청정도 비교(배)
공업지대	500,000	250 - 1,000	1
대도시	100,000	50 - 200	50 - 200
숲	500 - 2,000	1	250 - 1,000

음이온이란?

공기중에 있는 음전하를 띤 미립자인 음이온이 인체조직과 정신상태에 영향을 줌.음이온은 태양의 자외선, 폭포, 계곡의 물가, 분수 등 물분자가 격렬하게 운동하는 곳, 빗방울이 튀기는 곳, 산림,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왕성한 곳.

식물 분류 (잎 모양) : 침형, 도란형, 장상형, 심장형

뿌리의 깊이 : 뿌리는 직근, 측근. 세근

열매 모양 : 술방울(구과), 도토리(견과), 은행(핵과), 단풍나무(시과)

식물의 분류

식별 identification

- 어떤 식물이 서로 같고 같지 않음을 가려내는 것.(배추, 무우)

분류 Classification

- 형태, 생리, 유전적 유연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
 - 공통적인 특색을 가진 종은 동일 屬 (genus)
 - 서로 유연관계가 가까운 속은 동일 科 (family)

명명 (命名, Nomenclature): 국제명명규약에 따라 어떤식물의 정확한 명칭을 부여
이명법 (二名法, Binomical nomenclature)

학명 (學名, scientific name, Latin name) → Latin 어로 명명

속명 generic name + 종소명 species epithet + 명명자 author name
(대문자) + (소문자) + (대문자) (소문자)

향명(common name; 지방명. local name)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 150만종

식물 : 12문 26만 종류

관다발 유무 : 무관속 → 이끼류 등의 3문

유관속 → 9문 : 비종자식물 → 4문

종자식물 → 5문 → 4문 겉씨식물

1문 속씨식물 (23만5천종)

봄에 피는 꽃

들이나 산의 키작은 초본류는 곤충에 의하여 매개되기 때문에 나뭇잎에 가려지기전 초봄에 꽃이 핀다. 참나무,오리나무,자작나무 등 풍매화 식물은 잎이 나기전에 개화

가을에 꽃이 피는 나무는 드물다 → 약한 광합성으로 열매가 정상적인 결실 곤란
차나무는 상록으로 늦가을에 꽃을 피우고 다음해 가을에 성숙.

자기 꽃가루의 식별

피자식물은 자가불화합성(자기꽃불임성)이 있기 때문

1) 화분관을 따라가다가 생장이 정지

2) 수정이되어도 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함

나자식물, 장미과, 가지과, 양귀비과, 미나리아재비과

→ 자신의 화분이 면역적으로 확인되면 생장이 정지됨

십자화과, 국화과 식물→ 암술머리에서 발아가 억제됨

암술과 수술이 따로 성숙하는 경우

웅예선숙 → 이질꽃, 해바라기 등은 수술이 먼저 성숙

자예선숙 → 천남성과, 미나리아재비과

암술대와 수술대의 크기도 다르다

암술대가 크다 → 개나리, 앵초

긴수술의 꽃가루를 긴암술로 짧은 수술의 꽃가루를 짧은 암술로 이동

작은 꽃밥을 만드는 이유

매개동물에게 한번에 모든걸 뺏기는 것보다 작은꽃을 순서대로 터뜨림으로서

오랫동안 화분을 분산시키는 효과

열매와 종자

- 1) 크기 : 씨앗이 많이 생기면 크기가 줄고 → 참깨, 콩, 달맞이꽃 등
크기가 커지면 개수가 줄어든다 → 밤, 감, 등
- 2) 수명 :
단명식물 → 1년생 초본류 → 작은 씨를 많이 대량 산포
목본식물 → 다년생식물 → 씨앗이 상태적으로 크고 수가 적다.
나무 → 관목 → 씨앗의 평균무게 → 328 mg → 69 mg → 9 mg
- 3) 동물의 포식
새콩, 물봉선, 제비꽃 → 열린꽃 과 닫힌꽃 함께 있음.

<현장 강의>

백사골 탐방로를 따라 와운마을 위쪽까지 걸으며 식물 이름 익히고 설명을 들음.

-관찰 식물 :

진득찰(노란꽃이 피고 진득진득해서), 사위질빵, 좁개잎나무, 개나리, 쥐손이풀, 고마리, 작살 나무(보라색 열매), 지리바꽃(투구꽃: 사약 만듦), 줄참나무, 노각나무, 녹나무(차이 냄새), 산뻗나무, 고광나무, 덜꿩나무, 가막살나무, 느릅나무(굴참처럼 코르크 발달), 누리장나무, 함박꽃, 당단풍(잎 9~11개, 털), 쇠물푸레(7~11) 물푸레(5~7), 산철쭉(방추형), 철쭉(5개로 모여 남), 서어나무(복거치, 털없음), 박쥐나물, 고들빼기, 고사리, 비목(귀죽나무), 오리나무(열매는 염료), 나도밤나무(밤나무잎처럼 잎이 큼), 너도밤나무(잎 작음), 개웃나무(잎자루 붉다), 대팻집나무(수피 흰점), 박달나무(가로점, 검은수피), 신갈나무(엽병짧다, 꺾불형, 털없다) 줄참, 떡갈, 굴참, 쪽동백(때죽나무과), 다릅나무, 소나무 나이 알아보기, 갈매나무, 짝자래나무, 피나무(잎 하트모양), 신갈나무, 까치박달, 구릿대(산방화서) 거북꼬리, 오리방풀, 며느리배꼽, 며느리밀짚개, 복자기나무, 산뻗나무, 고광나무, 파리풀, 말발도리, 층층나무, 개비자나무, 까치밥나무, 수까치개, 딱총나무, 짚신나물, 황벽나무, 산수국, 까치수영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지리산의 포유동물의 흔적				
교육 일시	2004.9. 18~19	교육 장소	백사골강의실/ 탐방로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최태영		연락처	
	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교육 내용	지리산의 포유동물에 대한 영상 실내강의와 현장 강의 1박2일. * 실내강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서식하는 동물 개체 영상 강의 (고라니,오소리,삿,담비,여우,멧돼지,노루,족제비,수달 등) * 현장 강의 -연구원들의 포획방법과 포획틀 견학 -지리산 부운리 뒷산을 따라 동물 흔적을 현장 조사하며 설명 -삿과 너구리,족제비,멧돼지,노루의 분비물과 흔적 발견 방법과 조사				
준비물	영상강의(프로젝터,노트북,영사막,레이저포인터)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동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현장에서 동물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강의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음. -동물의 생태사슬에 대한 강의를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는 효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흔적 발견 방법과 실제 흔적을 봄으로써 많은 도움이 됨.				

□ 강의 내용 요약

멧돼지

규모가 큰 산지에 사는 흔한 종으로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잘 드는 남향과 낙엽활엽수가 우거진 곳을 좋아한다. 해질 무렵에 활동성이 강하며 시각에 비해 청각과 후각이 발달. 진흙 목욕을 한 후 몸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몸을 주로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등 침엽수나무에 비비는 성질이 있다. 잡식성으로 여러가지 동식물을 먹는데 주둥이로 땅을 파헤쳐서 먹이를 찾는다. 식물의 뿌리, 도토리, 지렁이, 죽은 동물, 곤충의 유충을 잘 먹는다. 배설물의 일반적인 형태는 꽃감을 여러개 겹친 모양이나 반달가슴곰의 배설물과 유사한 경우도 있다.

고라니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의 경우 위턱에 송곳니가 입 밖으로 길게 나와 있다. 야산의 기슭이나 강기슭, 억새가 무성한 습지에서 살며 계절에 따라 사는 장소를 옮긴다. 초식성으로 나뭇잎, 연한 풀을 먹으며 겨울에는 겨울눈, 나뭇잎, 보리 등을 먹는다. 노루나 고라니 등의 배설물은 콩자반과 매우 유사하다.

걸을 때 평소에는 두개의 발굽만 찍히다가 뛰기 시작할 때나 멈출때 그리고 무른 땅 위나 눈 위를 걸을때 발굽 뒤의 머느리발굽이 함께 찍힌다.

노루

수컷에만 뿔이 있다. 겨울철 엉덩이 부분에 하얀털이 나 있어 고라니와 쉽게 구분된다. 높은 산 또는 구릉의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겨울철에도 음지를 좋아한다. 해진 뒤나 새벽에 활동한다.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풀, 나무줄기나 잎을 즐겨 먹는다. 겨울에는 나무의 순이나 잔 가지의 껍질을 먹는다.

담비

담비속 가운데 가장 대형의 종으로, 산림지대에서 생활하며, 바위가 많은 지형을 즐겨 이용한다. 식성은 곤충에서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과 머루, 다래 등의 나무 열매도 즐겨 먹는 잡식성으로, 가을철 배설물에는 다래와 고욤이 많이 관찰된다. 아직 정확한 생태에 관해 연구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담비 배설물이 발견되는 지점은 등산로 옆의 작은 바위 위나 쓰러진 고목 위에서 주로 발견된다.

수달

수계와 육지를 이용하는 수달의 몸은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다. 전국의 산간지대 계곡, 하천, 호수, 저수지와 연안의 도서에 널리 분포하였으나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다. 물가 바위 구멍, 나무뿌리 밑에서 살며 서식지 주위의 바위와 모래톱에 비릿한 냄새가 나는 물고기 뼈가 섞인 배설물과 발자국으로 서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먹이는 어류에서부터 소형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갑각류, 조류까지 다양하다.

주로 냇가나 강가의 모래밭에서 수달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 발가락 5개와 물갈퀴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물가 바위 위에 배설하는 습성이 있다. 물고기를 주로 먹는 수달의 배설물을 자세히 보면 물고기 뼈와 비늘을 볼 수 있다.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오소리

나무가 울창한 산림에서 주로 생활한다. 햇볕이 비치는 산림이나 관목림, 구릉지의 계곡 주변에 굴을 파거나 바위굴을 이용해서 생활한다. 강한 발톱을 갖고 있어 구멍을 파서 생활하는 특징이

있으며 동굴 가까운 곳이나 경계지역에 흙구멍을 파서 배설물을 쌓아두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먹이는 낙엽 밑의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 동물을 주식으로 하며 나무열매(장과류), 설치류, 뱀 등을 먹기도 한다.

너구리

관목이 우거지고 습윤한 저지대,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갈대밭과 초지에서 서식한다. 또한 농경지 부근이나 민가부근에서도 자주 출현한다.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잡식성으로 작은 동물, 쥐, 뱀, 도마뱀, 곤충, 나무열매 등을 먹는다. 너구리는 일정한 지점에 반복적으로 배설을 하는 똥자리를 만들어 둔다. 먹이는 설치류, 파충류, 어류, 곤충, 식물의 열매 등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고무장갑이나 비닐 등 쓰레기도 배설물에서 자주 발견된다.

삿

이마에 진한 세로 줄무늬가 있고 몸에 황갈색의 뚜렷하지 않은 반점이 있다. 꼬리는 두껍고 아래로 쳐지며 귀 뒤의 흰색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구분된다.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먹이를 찾아다닌다. 주로 쥐 종류와 작은 동물, 꿩 새끼,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닭, 오리를 잡아먹는다. 삿은 고양이과 동물로서 먹이를 사냥하지 않는 평소에는 발톱을 숨기기 때문에 발자국에 발톱 자국이 없으며, 4개의 발가락이 발자국에 남겨진다.

<현장 강의>

부운리 뒷산으로 오르며 동물 흔적을 현장에서 관찰함.

삿 : 길가에 털과 뼈 등이 섞인 삿똥 발견. 시간이 경과해 발자국은 발견 못함.

고라니 : 숲에서 고라니 발자국과 똥 발견. 콩자반 모양의 똥이 흩어져 있고 고라니가 지나간 발자국을 발견. 투명 비닐에 네임펜으로 발자국 표본을 뜨고 똥 채집. 똥에서 털을 채취하여 노루털과 여름철의 색깔 차이 등 설명을 들음.

너구리 : 너구리 발자국으로 보이는 발자국을 보고 표본을 뜸. 똥을 한 자리에 무더기로 쌓는 너구리똥무더기는 발견하지 못함.

멧돼지 : 숲에서 멧돼지가 쓸고 지나간 길과 흔적에서 발자국을 관찰, 이동 방향 등을 추정해보고 뿌리 등을 캐기 위해 파헤친 구덩이 흔적 관찰.

멧토끼 : 숲에서 동글동글한 토끼똥 발견. 풀을 주로 섭취해 냄새 없고 끈적임이 없으며 환약 같은 모양.

족제비 : 길 한복판 튀어나온 바위에서 똥 관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눈에 띄는 곳에 똥을 싸는 습성에 따라 잘 보이고 비에 쓸려내려지 않고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곳에 똥을 싸놓음.

노루 :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나무 줄기에 굵은 유사 자국을 통해 빨로 나무를 긁는 노루의 습성에 대해 배우고 고라니와 노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음(노루는 여름철 붉은빛 털, 겨울철 엉덩이 흰털)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호랑이가 살았던 지리산 이야기				
교육 일시	2004. 9. 18	교육 장소	뱀사골강의실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우두성		연락처	
	약력	-지리산 자연생태보존회 회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남부지부 공동대표			
교육 내용	지리산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강사의 실제적인 지리산과 포유동물 이야기를 들음. -지리산국립공원 제정의 역사 -지리산에서 본 포유동물들 -반달가슴곰 발견과 복원의 역사들				
준비물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지리산과 평생을 살아온 강사의 이야기로 살아있는 강의가 되었으며 지리산의 과거와 훼손된 현재 모습에 대한 비교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음.				

□ 강의 내용 요약

6·25전쟁 종전직후인 1955년에 당시 구례중학교 우종수 교사를 비롯하여 강기중 교수, 이규중 교수, 윤중섭, 안성문 등 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손재훈, 양한익, 성승준, 김용선, 김태준, 안기조 제씨 등 일반 인사들과 더불어 “구례 연하반(求禮 烟霞伴-지리산악회 전신)이란 명칭으로 자생 산악활동 그룹을 결성(회장 손재훈, 총무 우종수)한 이후로 자주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산악활동을 하였다.

지리산원시림의 불법도벌 현장을 목격하게 됨으로서 그 참상에 대한 안타까운 개탄과 참을 수 없는 울분이 마침내 “연하반” 그룹으로 하여금 수려한 지리산 자연자원의 훼손방지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책을 몰라 고민하고 있을 무렵의 1963년 이른 봄에 국립공원 전문학자 김헌규 박사(金憲奎,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가 지리산 탐방길에 올라 구례에 들렀을 때 우연히 “연하반”총무를 만나게 된 인연으로 그 날에 “연하반” 여러 회원들과 합석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 그때 김박사는 그 전해인 1962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세계국립공원 회의가 열렸을 때 초청을 받아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귀국한 후, 처음으로 지리산을 찾게 된 터였다. 그날 담론의 화제는 주로 지리산이 당면하고 있는 대규모 산림도벌에 의한 지리산 원시림의 훼손에 대한 참상과 그 방지대책에 대한 간담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김박사의 판단은 “지리산 생태계의 자연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선진국 전례로 미루어보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아 정부 책임하에 관리 보호하는 길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과 아울러 외국의 공원법 등 참고자료를 주시면서 앞으로 자기도 후원해 줄테니 우선 급한 대로 열성적인 이곳 “연하반” 그룹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운동을 서두르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라는 진지한 조언과 감동적인 격려사가 뒤따랐다.

그로부터 “연하반” 회원들은 구례군관내 관공서 주요기관장과 지방유지 여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지리산의 원시림 도벌 현장의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지리산의 자연보전은 장차 구례의 관광개발과도 직결되는 중요사항이니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음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를 설명 납득케 하여 군민다수의 찬동여론을 조성한 다음, 다음 달 4월 초순에 거군적인 군민대회를 개최하여 “지리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요로에 제출할 건의문 작성과 전달할 군민대표선출 등 준비를 서둘렀다.

67년 3월에는 국립공원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20일에는 16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이 있었으며, 동년 11월 24일에는 제1회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리산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결의가 된 다음, 동년 12월 27일에는 국토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한 후 1967년 12월 29일 드디어 지리산국립공원의 지정이 건설부장관에 의해 공고·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연하반이라는 등산 모임의 이름은 “산수를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연하반 취지문을 읽어보면 “일제를 거쳐 피폐된 정신을 치유하고 금수강산을 이루자”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 당시 우리는 7박 8일만에 화엄사-천왕봉-중산리를 지나는 종주를 할 수 있었다. 별다른 장비가 없어 한 보폭당 60센티미터로 계산해 57년도부터 등산지도를 만들어 62년도에 완성하였다. 산과 샘에 이름을 붙이고 자전거 물받이를 페인트 칠해 표지판으로 사용하였다. 65년도에 국립공원 추진운동이 시작되어 1만2천가구 가운데 1만가구가 십원씩 거두고 이십원씩 거둬 67년도에 국립공원지정을 받았다.

그 당시 우리는 많은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사라져갔습니다. 포수들이 곰과 호랑이를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우리의 산야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 중 비교적 쉽게 목격되는 포유류는 다람쥐.청설모.고슴도치.족제비.멧토끼.너구리.고라니 등이며 쉽게 볼 수는 없으나 눈여겨 보면 서식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 동물로는 멧돼지.오소리.노루.삿.수달.담비.하늘다람쥐 등이 있다. 또한 서식흔적을 쉽게 볼 수는 없으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야생동물로는 사향노루. 산양. 반달가슴곰이 있다.

국제 보호동물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와 멸종 위기종 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수달은 수환경의 지표동물로 수질오염이 적정 수치를 넘으면 급속히 절종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에서는 수달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구례 문척면 섬진강일대를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다.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가슴곰은 현재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지리산등에 약 15-2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 약 13,000마리. 러시아와 중국에도 수만 마리의 반달곰이 살아있으나 우리나라는 건국신화의 주인공임에도 절종위기에 처해있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절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반달가슴곰은 1996년 “지리산 생태보존회”에서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호대책을 촉구하여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에 27명으로 구성된 “곰관리팀”이 발족되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옛사람의 기억 속으로만 남아 있는 지리산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지리산을 잘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지리산과 역사와 인물				
교육 일시	2004.10. 2	교육 장소	실상사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이성렬		연락처	
	약력	-거창 산업과학고 교사 -전교조 역사교사모임 회원			
교육 내용	지리산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있어 지리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해줌. -지리산의 명칭과 유래 -지리산의 신화와 전설 -지리산과 인물 -지리산과 빨치산(지리산의 현대사)				
준비물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지리산의 지명유래, 신화 등을 재밋게 들을 수 있었고, 현대사의 비극과 함께한 지리산의 역사를 통해 역사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강의가 됨.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루느라 강의시간이 짧아 집중된 내용을 선정, 집중해서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강의 내용 요약

지리산의 명칭과 유래

지리산으로 불리어진 것은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師利菩薩)의 지(智)자와 리(利)자를 따와 지리산(智利山)이었으나 문수보살이 중생을 제도(濟度)하기 위하여 갖가지 다른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智慧)로운 이인(異人)이 많이 계시는 산(山)'이란 뜻으로 지리산(智異山)으로 적었다는 견해가 가장 많다.

두류산은 백두산에서 흘러나온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루뭉실한 산이나 고지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에서 두류산이라 불리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설

여신 마야고, 우투리 전설, 걸어나오는 산이야기, 인걸과 아미선녀, 음양수와 선비샘, 뱀사골전설, 차일봉과 달궁, 지리산신,

지리산과 인물

1)최치원 : 통일신라 때 뛰어난 학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골품제라는 신분제도의 한계로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였던 6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신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으로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에서 관직까지 하였고 특히 황소의 난 때 ‘토황소격문’이라는 명문으로 이름을 높였다.

귀국하여 여러군의 태수를 지냈고, 특히 함양태수로 재직하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고 조성한 나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의 울창한 상림숲이다. 이후 시무책을 올린 것이 받아들여져 6두품 최고 관등인 아찬에 올랐으나 당시 사회적 현실에서는 자신의 개혁안이 실현될 수 없음을 비판, 갈등을 하다 전국을 유랑하였는데 특히 지리산 곳곳을 다니며 명문과 글씨를 남겨놓았고 마지막으로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쳤다.

2)김종직 : 김종직은 고려말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 학자인 정몽주, 길재의 학풍을 이은 아버지로부터 수학하여 사림의 조종으로 문장과 사학에도 두루 능하였고 그의 제자인 김굉필과 정여창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김굉필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학자인 조광조를 배출하였다. 그가 기록한 ‘弔義帝文’이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기초한 사초에 삽입되면서 조의제문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방한 것이라 모함당하면서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들이 화를 당하였고 그도 부관참시되었다, 그가 함양태수로 재직하면서 그가 지리산을 둘러보고 남긴 “유두류록”은 두류산 유람록 출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유람록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라 할 지라도 옳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말 것이다.....”는 문구는 당시 그의 절개와 사림들의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구이다. 이후 그의 제자인 김일손도 진주교수로 부임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정여창과 함께 지리산을 둘러보고 “속두류록”을 남겼다.

3) 남명 조식 : 조선 중기 학자. 25세 때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처음 읽고 크게 깨우친 바 있어 이후로 유학에만 힘써 대학자로 추앙받았다. 중종 때부터 명종선조 때까지 삼조(三朝)에 걸쳐 그에게 여러 벼슬을 내리고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지리산 덕천동(德川洞)에서 선비를

모아 강학(講學)에 힘쓰는 등 오직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만 힘썼다. 문하에서 오건(吳健)·김우용·정구(鄭述)·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어 한 학파를 형성하였으며, 그의 문인들은 스승의 기상과 학풍에 영향을 받아 대체로 은일적(隱逸的)인 학풍을 지녔고 특히 절의(節義)를 중시하였다. 저서로 《남명집》 《남명학기유편(南冥學記類編)》 등이 있다.

그도 만년에 지리산을 10여 차례나 유람하고 “유두류록”을 남겼는데, 두류산을 유람하면서 본 산수를 통해 당시 백성들과 유리되어 사치를 즐기는 위정자를 비판하였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사찰 확장에만 주력하면서 중생구제에 소홀한 승려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통해 그의 지조와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다.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지리산과 문화재				
교육 일시	2004.10. 2~3	교육 장소	실상사, 산청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조익현		연락처	
	약력	-거창 대성환경정보고 역사교사 -전교조 역사교사모임 회원			
교육 내용	지리산의 문화재를 슬라이드 강의를 통해 실내강의, 산청 남명 유적지 현장 강의 1박 2일 * 실내 강의 -사찰 -석탑과 석등 -불상 -부도와 부도비 -백장암/실상사/단속사터 동서삼층석탑 * 현장 답사 -산청 남명 유적 답사를 통해 남명 기념관/ 산천재 / 덕천서원 / 묘소를 둘러보며 해설을 듣고 단속사터에서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현장에서 들음.				
준비물	영상강의(슬라이드환등기, 영사막), 현장 이동 차량	참고자료	교재 참조		
평 가	-지리산의 지명유래, 신화 등을 재밋게 들을 수 있었고, 현대사의 비극과 함께한 지리산의 역사를 통해 역사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강의를 됨.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루느라 강의시간이 짧아 집중된 내용을 선정, 집중해서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강의 내용 요약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이 산이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거나 유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지리산의 삼림이 불타거나 남벌된 것처럼 이 산의 사찰과 암자, 값진 문화유산들이 수없이 많이 불타거나 약탈되어 사라졌다. 현재 지리산에는 화엄사를 비롯해 연곡사, 쌍계사, 천은사, 대원사, 법계사, 실상사, 내원사, 율곡사, 벽송사 등 10여 개의 사찰과 국보 7점, 보물 23점, 지방문화재 7점, 사적지,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가 남아있어 지리산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 : ‘부도중의 부도’라고 할 만큼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기품을 간직한 부도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부도 중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부도와 함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지리산 화엄사 일주문 :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인도 승려 연기가 세웠다. 선덕여왕 11년(642) 자장이 중창했다.

화엄사 각황전, 서오층석탑 :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건물. 거대한 규모이면서도 안정된 비례에 엄격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위엄과 기품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빼어난 건축이다. 처음에는 장륙전(부처님의 몸을 ‘장륙금신’이라 하는데에서 유래함)이었던 이 건물은 조선 중기인 숙종 25년(1699) 공사를 시작하여 4년만에 완공되었으며, 공사의 마무리와 더불어 숙종으로부터 ‘각황전’(覺皇殿)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사격 또한 더욱 높아져 선교양종 대가람이 되었다. 현재 국보 제67호로 지정돼 있다.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 높이 6.4m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 가장 크며, 세계에서도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신라 석등의 기본형인 팔각을 따르고 있으나, 간주석을 장구 모양의 고복형으로 만들어 당시 전라지방에서 유행한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섬세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스케일이 위엄을 느끼게 한다.

실상사 석등(보물 제35호) : 간주석은 3단의 마디로 층급을 이루어 고복(장구)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돌출된 마디마다 중앙에 세 줄 띠를 두른 꽃무늬를 장식하고 그 아래 위에 단엽의 연꽃잎을 장식하였다. 불을 붙일 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돌계단까지 갖추고 있는 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41호) : 수철스님이 4천근이나 되는 철을 들여 만든 높이 2.7m의 거대한 철불로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다. 상체가 풍만한 이 불상은 두 발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완전한 결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 꼳꼳하게 앉아 동남쪽에 있는 천왕봉을 바라보고 있다. 창건 당시인 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초기 철불의 걸작으로 꼽힌다.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 : 전형적인 석탑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성된 이형석탑이다. 네모난 지대석 위에 기단없이 몸돌받침에서 시작하여 3층 지붕돌까지 3층의 탑신부가 올려져 있으며, 각 부재마다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이 빈틈없이 장식되어 있어 눈부시다. 상륜부는 노반·복발·양화·보개·보륜·수연 등이 찰주에 차례로 꽃혀있는 온전한 모습이다. 1980년 2월 도굴꾼에 의해 파손된 이후 다시 복원되었다.

백장암 석등(보물 제40호) : 하대석, 간주석 그리고 상대석과 화사석, 지붕돌을 모두 갖춘 2.5m의 석등. 하대석은 팔각의 지대석 위에 놓인 복련 연화대석으로, 지대석 측면에는 안상이 조각돼

있으며, 연꽃 안에 다시 화사한 꽃잎 조각이 새겨져 있다. 양련석 위에는 난간을 들렀는데, 석등에 이렇듯 난간을 조성한 예는 없다. 난간에 조각된 동자상도 무척 독특하다.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석등이다.

함양 마천 마에여래상(보물 제 275호) :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높이가 5.8m나 되며, 어깨에서 다리 쪽으로 하얀 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검은색인 바위와 대비해 일부러 채색을 한 듯 신비롭다. 넓적한 얼굴, 긴 눈, 큼직한 코, 굳게 다문 입 등에서 강직한 힘이 풍겨나지만,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자비로움도 느껴진다.

벽송사 목장승 원본 : 왼쪽 장승은 몸통 부분에 ‘금호장군이라 음각돼 있고 오른쪽 장승은 ‘호법대장군’이라 음각돼 있다. 왼쪽의 것이 여장승으로, 1969년 산불이 났을 때 머리가 타버려 숯이 되었고, 코도 떨어져 참담한 꼴이 되었으며, 거의 아랫부분만 남아 있는 형편이지만, 특 불거져 나온 눈과 양끝을 벌려 성난 표정을 짓는 입이 현실감 있다. 오른쪽 남장승은 머리는 짱구 모양의 민머리이며 특 튀어나온 눈과 콧구멍이 크고 코끝이 뭉툭하다. 입은 합죽하며, 그 주위에 불꽃 같이 여러 갈래로 수염이 돌아나 있다.

남원 만복사터(사적 제349호) : 고려 문종 때 창건된 만복사는 한때 수백명의 스님들이 수도하던 거찰이었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후 복원되지 않았다. 이름 또한 대중적이어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기원하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시습의 한문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만복사 저포기’의 무대. 1탑 3금당식의 독특한 가람배치. 고려시대의 가람배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료가 되고 있다.

만복사터 석인상 :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 3.75m에 이르는 긴 지주형의 인왕상인데 현재는 모두 묻혀버리고 머리 부분만 드러나 있다. 당간지주 역할(짜이 발견됨), 아니면 사찰장승으로 보는 이도 있다.

운봉 서천리 돌장승(방어대장군) : 이 일대의 장승들은 평생을 농사일로 보낸 건강하고 굳센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어 더욱 정겹다. 방어대장군은 높이 2.2m이고, 진서대장군은 2.07m이며 약 300년 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운봉 서천리 돌장승(진서대장군) : 진서대장군은 1989년 도난을 당했다가 되찾았는데, 방어대장군보다 더 우악스럽지만 시침뎌고 엉뚱한 척하는 표정이 외려 익살맞다.

<현장 강의>

경남 산청 덕산 일대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남명 조식 선생의 덕천서원에 가 후손 조종명 선생님의 남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덕천서원 해설, 단속사지터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음.

구형왕릉 : 사적 제214호. 층단(層段)을 이루는 방형(方形)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사면에 축조하였다. 전면은 7단을 이루고, 후면으로 갈수록 경사져서 층의 높이에 따라 체감되고 있다. 전면 중앙에서의 전체 높이 7.15m이며, 제4단 동면에 너비 40cm 내외, 높이 40cm 내외, 깊이 68cm 내외의 감실이 개설되어 있다. 이 돌무덤을 중심으로 같은 잡석으로 높이 1m 내외의 담을 쌓고 전면 중앙에 <가락국호왕릉(駕洛國護王陵)> 이라고 새긴 석비가 있다.

산천재 : 남명이 61세(명종 16년, 1562)되던 해 지은 서재이다. 이후 죽을 때(72세)까지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경륜을 펼쳤다. 정인홍, 오건, 정구, 최영경, 곽재우 등 100여 명의 인재가 그로부터 배출되었다.

산천재의 주련(남명의 시)-

덕산에 터를 잡고서(德山卜居)
봄산 어디엔들 향기로운 풀 없으리요(春山底處無芳草)
다만 천왕봉이 하늘과 가까움을 사랑해서라네(只愛天王近帝去)
빈 손으로 왔으니 무얼 먹고 살거나(白手歸來何物食)
은하가 십 리이니 먹고도 남으리(銀河十里喫有餘)

산천재의 벽화(농부가 소를 모는 그림) : ‘산천재’ 라는 현판 왼쪽에 농부가 소를 모는 그림이 있다. 소모는 농부 그림은 토벽이 떨어진 것을 양회로 덧발라 보수하였는데, 미장이가 용케도 소 모양만 잘 살려 내었다.

산천재의 벽화(소부와 허유의 그림) : 오른쪽에 버드나무 밑에 귀를 씻는 선비와 그 물을 자기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끌고 가는 농부의 그림이다.

덕천서원 : 남명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남명이 타개하고 5년 뒤인 선조 9년(1576)에 제자들이세웠으며, 광해군 1년(1609) 사액을 받았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없어져 1920년대에 다시 중건하였다.

세심정 : 서원앞 강가에 있는 정자로 남명이 살아 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남명 묘소 : 산천재 맞은편 산자락에 있다. 묘 앞에는 군데군데 총상을 입은 흔적이 역력한 묘비들이 늘어서 있다.

단속사 동삼층석탑(보물 제72호) : 비교적 높은 편인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우주와 탕주 둘을 모각하였고, 상층기단의 면석에는 우주와 탕주 하나를 모각하였다. 이같은 양식은 통일신라 중기 이후에 보이는 석탑의 특징이다.

단속사 서삼층석탑(보물 제73호) : 수평을 이룬 처마 밑에 5단의 받침이 있고, 지붕면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흘러내리다가 네 귀의 끝에서 가볍게 반전되었다. 동탑의 상륜부에는 노반, 복발, 양화까지 남아 있지만, 서탑은 양화가 손실되었다.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사찰 알고보기 (불교식 상징의 의미)				
교육 일시	2004. 10. 3	교육 장소	실상사	교육인 원	19
강사	성명	재연 스님		연락처	063-636-3031
	약력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인도 뿌나 대학 박사과정 수료			
교육 내용	-사찰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식 상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사찰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불교식 개념들의 의미들을 짚어 봄.				
준비물			참고자료		
평 가	-실상사에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참가자들이 불교적 상징의미를 알 수 있었고, 종교인의 강의를 의미있는 체험이 되었다. -문화유산 해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강의로는 미흡.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숲 해설 프로그램의 기획				
교육 일시	2004. 10. 16	교육 장소	백사골 강의실	교육인 원	18
강사	성명	하시연		연락처	
	약력	-서울대학교 환경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생명의 숲, 숲해설 활동가 -전화 : ██████████			
교육 내용	-숲해설의 목적 숲 해설 활동은 직간접적인 경험 등을 통해서 숲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설이 이루어지는 대상 지역의 지질학적인 특성, 야생 동식 물, 생태, 역사 문화, 환경 보호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숲 해설의 원칙 첫째, 환경해설은 방문자들의 개성과 경험과 관련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해설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단지 정보 전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환경해설은 다양한 기술이 합쳐진 예술이다. 넷째, 환경해설의 궁극적 목적은 자극이다. 다섯째, 환경해설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한 환경해설이어야 한다. -숲해설 시연 프로그램 기획의 방법, 노하우, 사례발표 -숲해설 시연에 유용한 도구들 소개				
준비물	해설 시연 도구		참고자료	참고문헌 프린트물	
평 가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체험에서 나온 생생한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음. -현장 해설의 노하우와 사례들, 시연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 등이 참가자들에게 안내자로서 활동하고픈 욕구를 자극.				

□ 강의 내용 요약

숲해설의 목적

숲 해설 활동은 직간접적인 경험 등을 통해서 숲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설이 이루어지는 대상 지역의 지질학적인 특성, 야생 동식 물, 생태, 역사 문화, 환경 보호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숲 체험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숲해설의 유형

해설가에 의한 안내식 기법은 탐방객과의 직접적 대화와 일정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해설이 가능하고, 탐방시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영향의 최소화, 탐방객의 건전한 이용 행동 유도에 효과적인 기법이다. 자기 안내식 기법은 해설가를 통한 안내식 기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해설 인력 소요와 해설가 교육훈련 및 연수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발생 문제의 해결과 탐방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을 자유로이 탐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숲 해설가란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무와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산림탐방 활동 등을 도와주는 숲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 내에서의 산림휴양이나 자연체험 활동 등을 지도하는 산림환경교육가라고도 볼 수 있다

숲 해설의 원칙

해설은 해설의 장소와 주제 그리고 해설의 참가대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술이 사용되며 해설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 지게 된다. 따라서 해설은 다양하게 방법과 내용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다. 이는 해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고 해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과 경비를 줄여준다.

Tilden은 해설 시에 지켜야 하는 6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해설은 방문자들의 개성과 경험과 관련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해설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단지 정보 전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환경해설은 다양한 기술이 합쳐진 예술이다.

넷째, 환경해설의 궁극적 목적은 자극이다.

다섯째, 환경해설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한 환경해설이어야 한다.

숲 해설 진행의 원칙

앞서서는 숲 해설이 전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살펴 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숲 해설의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흥미로워야 한다.

둘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넷째, 명확한 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설시 유의사항 >

- 대화를 진행할 때, 청중의 중심에서 청중을 마주보며 진행한다.
- 해설 도중에 청중들과 시선을 교환한다.
-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
- 능동형의 용어를 사용한다.
- 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청중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의문점(예. 수수께끼)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면 좋은 도구들>

열매 채집통, 나뭇잎 표본, 한자 카드, 자연물 찾기 빙고 카드,
다양한 교구들을 판매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구의 기능에 집착,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데 방해
가 될 수도 있다.

활동 개요

세 부 활동명	졸업식 및 졸업 산행				
교육 일시	2004. 10. 3	교육 장소	운봉~바래봉	교육인 원	15
강사	성명			연락처	
	약력				
교육 내용	<p>-지리산을 함께 오르며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개별 시연을 해볼 수 있는 졸업산행을 참가자들이 제안하여 수용함.</p> <p>-단한 강의실을 벗어나 수료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바래봉의 아름다운 조망을 만끽하였음.</p> <p>-길을 걸으며 개별 시연을 자유롭게 진행</p> <p>-산에서 하산하는 길에 이후 공부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함</p>				
준비물	점심도시락		참고자료		
평 가	<p>-교육 프로그램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수강생의 가족을 대동하는 것이 산만하고,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교육효과를 떨어뜨림.</p> <p>-졸업산행과 시연의 분리 필요: 산행시 걷는 속도의 개인 편차가 커서 개별 시연이 산만해지고 집중이 되지 않음.</p>				

5. 참여 강사 명단

이름 (강좌명)	약력
<p>조계중 ·국립공원의 역사와 의미 ·자연해설의 의미와 원리</p>	<p>-하와이활화산국립공원과 미시간 잠자는곰국립공원에서 해설가로 활동 -순천대학교에서 산림휴양과 공원해설 강의 -공원관리 도구로서의 자연환경해설과 야외 체험활동에 대한 연구중 -지리산생명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모임 운영위원 -전화 : ██████████</p>
<p>박봉우 ·숲과 삶의 문화</p>	<p>-고려대 임학과를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 -조경학, 산림휴양학, 국립공원, 임업사, 자연환경보존 및 복원 분야에 관한 연구중. -현재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숲과문화연구회 운영회원, (사)한국산림휴양학회 고문 -전화 : ██████████</p>
<p>우두성 ·호랑이가 살던 지리산이야기</p>	<p>-반달곰을 비롯 지리산의 야생동물과 수달보호를 위한 활동 -구례 자연생태보존회 회장,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 -전화 : 011-622-6336</p>
<p>최태영 ·지리산의 야생동물</p>	<p>-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지리산권 야생동물 로드킬 연구조사중 -전화: ██████████</p>
<p>이정환 ·지리산의 식생</p>	<p>-식물분류 및 생태학 박사 -현재 경남에코비전 21, 연구소장 -진주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상주대학교 강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식물 및 식생 전문위원 -지리산국립공원 운영위원 -전화 : ██████████</p>
<p>이성렬 ·지리산과 역사</p>	<p>-전국역사교사모임 -현 거창산업과학고 역사교사 -전화 : ██████████</p>
<p>조익현 ·지리산의 문화재</p>	<p>-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문화유산 답사 해설가 -현 거창환경정보고 역사교사 -전화 : ██████████</p>

<p>재연 스님 ·불교의 문화유산, 사살의 상징체계</p>	<p>-인도 뿌나대학 박사과정 수료 -현 대한불교 조계종 실상사 화림원 학장 -전화 : 063-636-3031</p>
<p>하시연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하기</p>	<p>-서울대학교 환경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생명의 숲, 숲해설 활동가 -전화 : ██████████</p>

6. 참가자 명단

	이름	거주지	나이	전화번호	직업
1	성인택	경기도 여주군	40	██████████	자영업
2	남춘래	전주시	43		자영업
3	김형단	경북 예천군	35		농사
4	이우섭	경남 함양군	43		농사
5	오선미	전북 남원시	32		농사
6	박석권	전북 남원시	43		농사
7	정상길	전북 남원시	34		목기가공
8	전선혜	전북 남원시	34		농사
9	이주승	전북 남원시	36		농사
10	유현미	경남 함양군	35		농사
11	김영길	전북 남원시	42		농사
12	서문용	전남 구례군	39		기술
13	서성열	전남 여수시	32		기술
14	하강주	경기도 안산시	45		자영업
15	계주호	전북 남원시	47		농사
16	육근남	전북 남원시	40		교육원근무
17	김무한	울산광역시	36		유치원 원장
18	박무열	전라북도 남원시	37		어린이집 근무

7. 종합 평가

1) 수강생 평가

지리산생태문화가이드양성교육에 참가한 수강생의 평가는 구두로 진행된 내용과 평가 설문지 작성을 통해 진행된 내용을 합쳐서 기록한다.

구두로 진행된 평가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리산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고, 강의와 현장교육을 통해 지리산의 다양한 가치를 온몸으로 느껴 알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이 참가자들에게 지리산 곳곳을 다니며 교육받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었다. 현장 강의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컸다.

또한 부차적인 문제로서,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강좌에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교육효과 면에서 집중을 떨어뜨려 교육생의 가족 참가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양성교육에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개괄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으나 각 분야의 안내자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2차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며 심화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여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공부모임을 만들었으며, 이 모임에서 특강을 요구하게 되면 교육진행단체인 지리산생명연대에서 강사 섭외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평가 설문지를 통해 본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가 동기를 보면 이렇다. 구체적인 직업으로서 안내자로 활동하고 싶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참가자는 2명이고 대부분의 경우, 지리산에 대해 알고 싶다(10명), 지리산 근처에 살고 있어서 지리산을 배우고 싶다(2명)는 포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가 워낙 이동시간이 필요한 지리산이다보니 인근 도시 거주자들의 참여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역 주민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상 활동계층이 적어(농촌의 노령화) 지리산권에서 안내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보다는 지리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더 교육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9명이 주관단체가 위치한 전북 남원시 산내면 일대의 귀농인구들이고, 1명이 전남 구례의 지리산권 원주민, 4명이 서울·울산·경남·예천·경기도 여주 등지의 타지역주민이다.

○ 최초 참가 동기는 지리산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일반적 동기가 강했어도 교육 이후, 공부모임에 참가하고 싶다(9명), 안내자로 활동하고 싶다(7명)는 응답이 있어 강의를 들으며 안내자로 활동하고 싶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활동 의지가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의 구성과 실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 강의 평가에 있어서 강의 내용과 강좌의 성격이 잘 맞는 경우에 높은 평가를 얻었고, 사전에 충분히 강의내용에 대한 의견교환이 적었던 강좌의 평가가 낮아 강의내용과 수강생들의 교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강의 내용의 질

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고, 실내 강의와 현장 강의의 구성이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 평가서 항목별 응답 >

(교육생 인원 : 총 17명-수강생 18명 중 1명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가. 참석하신 동기는?

설문 내용	응답 인원
주위의 권유로	1
지리산이 좋아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10
이후 직업적으로 지리산 안내자로 활동하고 싶어서	1
지리산에 살고 싶어 인연을 찾아	2
숲안내자 교육을 받고 싶어서	1
무응답	1
삶의 활력소를 얻고 싶다.	1

나. 강의를 들으며 좋았던 점은?

설문 내용	응답 인원
지리산에 대해 개괄적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4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생생하고 유익했다	12
무응답	1

다. 개선이 필요한 점?

설문 내용	응답 인원
강의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2
강사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토론 시간이 있었으면	13
강의 내용과 관련한 과제가 주어졌으면	1
무응답	1

라. 각 과목별 강의 평가 (매우 좋음 5점/좋음 4점/보통 3점/안 좋음 2점/매우안 좋음 4점)

강좌명	점수 평균
국립공원과 자연해설의 이해	4.5
숲과 삶의문화	3
자연해설 시연	3
지리산의 식생	4.5
지리산의 야생동물	4.5
지리산의 역사	4
지리산의 문화재	4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하기	4

마. 교육이후 수료생들간의 공부모임을 꾸렸을 때 참여 의사는?

설문 내용	응답 인원
참여하고 싶다	9
좀더 생각해보겠다	4
참여할 수 없다	3
무응답	1

바. 교육 이후 지리산 안내자 활동에 참여 의사?

설문 내용	응답 인원
하겠다	7
공부를 좀더 한 후 결정하겠다	4
활동은 어렵다	5
무응답	1

사. 활동하고 싶은 관심분야?

설문 내용	응답 인원
우리 마을 안내자	3
숲 자연해설 안내자	6
역사와 문화재	1
잘 모르겠다	7

아. 기타 하고싶은 말씀

이번 기회에 지리산을 알고 배우게 되어 참 좋았다.
모두 수고했다. 지리산에 사는 이들과 만나게 되어 기뻐다.
몇 주제의 강의만 심도 깊게 했으면 좋겠다.

강의 시간이 짧아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후 공부모임에서 많은 이야기,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달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맙다.

2) 단체 평가

○ 본 단체가 지리산권에서 지리산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지리산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삶의 문화가 돈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절감하였다.

○ 이번 양성교육을 통해 지리산권 주민들이 곁에 있지만 잘 느끼지 못했던 지리산의 생태, 문화, 역사적인 가치를 배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지리산을 우리의 삶터로 인식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지리산권에 이러한 안내 활동이 뿌리를 내린다면 지리산을 그저 관광의 대상으로 더 편히 더 멋진 것을 보겠다는 일반 국민들의 여가문화를 바꾸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준 수강생들이 개인사정으로 중도탈락한 1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여 강좌에 대한 열기, 지리산을 배우고 싶어하는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리산권에 지리산을 배울 수 있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의 구성과 참여동기를 볼 때, 앞서 평가서 분석에서도 말했듯이 안내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보다는 지리산에 대한 관심으로 지리산에 오고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강의 성격의 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리산 체험교육과 안내자 양성을 위한 심화 과정 분화 개설)

○ 안내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공부모임이 구성되었으나 실외활동이 어려운 계절적 요인(겨울)도 있고 이끄는 주체나 활동과제 없이 진행되어 자칫 활동의욕을 잃지 않도록 주관 단체에서 적절한 심화교육과 안내 활동 소임을 부여해야 한다.

○ 강좌의 내용은 대부분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주제 배분도 적절하였다. 또 실내 강좌와 현장 강좌를 병행하는 강의방식이 생동감 있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 양성교육에서 제시되는 풍부한 강의안을 바탕으로 지리산권의 초중등용 교과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형성과 준비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되었다.

○ 지리산문화권이라 할때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영호남을 함께 아우른다. 지리산권은 산으로 가로막히고 물로 가로막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정작은 산이 길이 되고, 물도 길이 되어 소통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들의 작은 활동이 지리산권 문화권을 숨쉬게 할 작은 움직임이 될 것이다.

8. 강의 수료자들의 이후 활동 계획

	이름	활동 계획	공부 모임 참가 여부
1	성인택	좀더 공부 후 활동 계획함	불참
2	남춘래	배움으로 좋음. 활동 계획 없음	불참
3	김형단	개인사정으로 수강 중도 포기	
4	이우섭	좀더 공부 후 활동 계획함	불참
5	오선미	안내자로 활동 계획 전선혜, 계주호님은 지역 프로그램의 요청으로 자연해설과 마을안내 3회 활동했음	참가
6	박석권		참가
7	정상길		참가
8	전선혜		참가
9	이주승		참가
10	유현미		참가
11	김영길		참가
12	계주호		참가
13	서성열	활동 계획 없음	불참
14	하강주	활동 계획 없음	불참
15	서문용	좀더 공부 후 활동 계획함	참가
16	육근남	활동 계획 없음	불참
17	김무한	좀더 공부 후 활동 계획함	불참
18	박무열	활동 계획 없음	불참

9. 예산 내역서

구 분	금액	세부 산출 근거	영수증 번호
차량 이용료			
강사료 (교통비포함)			
인쇄비			
물품 구입			
총 액			

10. 활동 사진



<그림 1> 8월 28일 국립공원의 역사와 이해 강의



<그림 2> 8월 29일 자연해설 시연



<그림 3> 8월 29일 하천 생물 관찰하기



<그림 4> 9월 5일 지리산의 식생 현장강의



<그림 5> 9월 19일 야생동물 흔적 찾기



<그림 6> 10월 2일 지리산의 역사 강의



<그림 7> 10월 3일 단속사지 탐 현장 답사



<그림 8> 남명 기념관 답사



<그림 9> 숲해설 프로그램 기획하기 강의



<그림 10> 교장선생님의 졸업사



<그림 11> 바래봉 졸업산행



<그림 12> 바래봉 졸업 산행